

## 마태오 복음서 13장

마태오 복음 13장은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들을 모아놓았다. 이것들은 단순히 어떠한 가르침을 설명하려고 일상생활에서 가져온 비유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생애를 상기시키는 용어들과 구성으로 짜인 이야기들이다. 예수님께서서는 비유를 끝맺으시면서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13,51)라고 질문하신다.<sup>1)</sup>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기도 하다. 이에 제자들처럼 “예”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마르 4,1-9; 루카 8,4-8)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는 토양과 곡식 수확의 연관성을 말한다. 곧 세 가지 불모의 토양과 세 가지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좋은 토양이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종말론적 사건을 예고하신다. 마지막 시간은 이미 시작되었고, 씨앗과 땅의 만남이 이미 이루어졌다.<sup>2)</sup> 이 비유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다. 첫째는, 현재의 실패에도(불모의 토양) 마지막에는 열매를 맺으리라는(좋은 토양) 확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그리고 둘째는 널리 뿌려지는 씨앗에서 열매를 맺는 좋은 토양이 되어야 한다는 축구를 담고 있다는 것이다.<sup>3)</sup>

- 1 그날 예수님께서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sup>4)</sup>
- 2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 3 예수님께서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 4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여기서 ”길“은 정식 길이 아니라, 사람들이 밭을 가로질러 다니거나, 농부들이 밭일을 하다 생긴 조그마한 길이다.<sup>5)</sup>

---

1) 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03쪽, 각주 1.

2) 즈카 6,12-13 : 그에게 말하여라. ‘만군의 주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 사람을 보아라. 그의 이름은 ‘새 짝’이니 그가 제자리에서 돌아 나와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라. 그가 주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며 바로 그가 임위를 갖추고 자기 왕좌에 앉아 다스리리라. 그의 왕좌 곁에는 한 사제가 있을 터인데 그 두 사람은 평화롭게 조화를 이루리라.’

3) 앞, 각주 2.

4) 루카 5,1-3 : 예수님께서서 겐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물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 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다. 예수님께서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물에서 조금 저어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5) 앞, 104쪽, 각주 4 참조.

- 5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 6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 버린 것이다.
- 7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 버렸다.
- 8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예순 배, 어떤 것은 서른 배가 되었다.
- 9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sup>6)</sup>

1)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씨뿌리는 농사법을 알아야 한다.

보통은 쟁기로 밭을 고르고 난 뒤 씨앗을 뿌리고 흙을 돋우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쟁기로 밭을 갈지 않은 채 그냥 흙 위에 씨를 뿌렸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씨를 뿌리는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었다. 씨앗을 가지고 나가 바람에 날리면서 한 번에 뿌리는 방법과 나귀 등에 구멍을 뚫은 씨앗 자루를 실어 돌아다니게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파종을 하다 보니 씨앗이 길 위나 돌밭,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이 살던 팔레스티나 지역에는 돌이 많아 파종이나 쟁기질이 아예 불가능한 곳이 많았다. 씨앗을 뿌려도 농부가 흙으로 덮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새들이 와서 쪼아 먹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다 보니 파종한 씨앗의 70~80%는 소실됐다.

2) 예수님께서서는 이와 같은 농사법을 예로 들으시면서 비유를 말씀하셨기에 청중들은 쉽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곧 청중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마르 4,10-12; 루카 8,9-10)

- 10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 11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sup>7)</sup>

6) 마르 4,23 : 누구든지 들을 귀가 있거든 들어라.

루카 14,35 : 땅에도 거름에도 쓸모가 없어 밖에 내던져 버린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묵시 2,7 :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겠다.

13,9 : 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7) 1코린 4,1 :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시종으로,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에페 3,3 : 앞에서 간단히 적은 바와 같이, 나는 계시를 통하여 그 신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아는 것은 누구에게나 허락된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에게만 열려있다. 곧 은총이다.

12 사실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sup>8)</sup>

13 내가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저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1) "가진 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하늘나라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이에게는 더욱 완전한 지식이 주어지리라 하는 것이다. 또한 "가진 자"는 자기 가 한일의 결과를 주인에게 바칠 수 있는 충실한 종을 가리킨다.<sup>9)</sup>

2) "가진 자"는 하느님의 은혜로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더 알게 되지만, "없는 자"는 알고 있는 지식도 잃게 된다.

3) 하느님을 향해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한다. 하느님의 은총과 열려있는 눈과 귀가 만났을 때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고,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14 이렇게 하여 이사야의 예언이 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다.

‘너희는 듣고 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고 또 보아도 알아보지 못하리라.

15 저 백성이 마음은 무디고

귀로는 제대로 듣지 못하며  
눈은 감았기 때문이다.

이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서는 돌아와

내가 그들을 고쳐 주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16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볼 수 있으니 행복하고, 너희의 귀는 들을 수 있으니 행복하다.

17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갈망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갈망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sup>10)</sup>

8) 마르 4,25 :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루카 8,18 :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잘 헤아려라. 정녕 가진 자는 더 받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줄로 여기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9) 앞, 각주 9.

마태 25,29 : 누구든지 가진 자는 더 받아 넉넉해지고, 가진 것이 없는 자는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10) 루카 10,23-24 :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돌아서서 제자들에게 따로 이르셨다.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 1) 예수님에게서 나타나는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알아보지 못하면, 하늘나라 자체를 보지 못한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느냐, 거기에서 제외되느냐는 예수님, 그리고 비유를 통한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느냐 또는 거부하느냐에 달려있다. 어중간한 자세는 있을 수 없다.<sup>11)</sup>
- 2) 하느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무뎠으므로써 예수님을 통해 드러나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닫지 못할 것을 예언하셨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마음이 무디고 완고하기에 들을 수가 없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복된 자들이다.

###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설명하시다(마르 4,13-20; 루카 8,11-15)

- 18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여라.
-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 20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sup>12)</sup>
- 21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 22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 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sup>13)</sup>
- 23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 배, 어떤 사람은 예순 배, 어떤 사람은 서른 배를 낸다.”

씨는 말씀이다. 씨 속에 생명이 있듯이 말씀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좋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우리의 밭은 좋

---

눈은 행복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임금에 너희가 보는 것을 보려고 하였지만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들으려고 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요한 8,26 :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즐거워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1베드1,10-12 : 이 구원에 관해서는 여러분이 받을 은총을 두고 예언한 예언자들이 탐구하고 연구하였습니다. 그들 안에서 작용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께 닥칠 고난과 그 뒤에 올 영광을 미리 증언하실 때 가르쳐 주신 구원의 시간과 방법을 두고 연구하였던 것입니다. 예언자들은 그 일들이 자신들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이라는 계시를 받았습시다. 그 일들이 하늘에서 파견된 성령의 도움으로 복음을 전한 이들을 통하여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천사들도 보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 11) 앞, 각주 10.
- 12) 1테살 1,6 : 또한 여러분은 큰 환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13) 1티모 6,9-10 :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리는 유혹과 올가미와 어리석고 해로운 갖가지 욕망에 떨어집니다. 사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따라다니다가 믿음에서 멀어져 방황하고 많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 땅인가 아니면 척박한 땅인가? 좋은 땅도 가꾸지 않으면 척박한 땅으로 변한다. 열매 맺지 못한다. 행여 척박한 땅이라 해도 땀 흘려 가꾸면 좋은 땅으로 바뀔 수 있다. 그러면 열매 맺는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의 성령이시다. 하느님의 은총과 우리의 노력 여하에 따라 열매도 결정된다.

## 가라지의 비유

- 24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자기 밭에 좋은 씨를 뿌리는 사람에게 비길 수 있다.
- 25 사람들이 자는 동안에 그의 원수가 와서 밭 가운데에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
- 26 출기가 나서 열매를 맺을 때에 가라지들도 드러났다.
- 27 그래서 종들이 집주인에게 가서, ‘주인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습니까?’ 하고 묻자,
- 28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하고 집주인이 말하였다. 종들이 ‘그러면 저희가 가서 그것들을 거두어 낼까요?’ 하고 묻자,
- 29 그는 이렇게 일렀다. ‘아니다. 너희가 가라지들을 거두어 내다가 밭까지 함께 뽑을 지도 모른다.
- 30 수확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어라. 수확 때에 내가 일꾼들에게,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단으로 묶어 태워 버리고 밀은 내 곳간으로 모아들이라고 하겠다.’”

- 1) 이 비유에서는 좋은 땅만 문제가 된다. 그리고 시간이 수확 때까지 연장된다. 이로써 이 비유는 세례자 요한처럼 결정적일 때가 빨리 오기를 초조히 기다리는 이들에 대한 대답으로, 일종의 ‘중간 시기’가 있다면서 하느님의 심판과 승리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라고 권유하시는 것이다.<sup>14)</sup>
- 2) “수확”은 종말의 심판을 상징한다.
- 3) 이 비유는 뒤에 이어지는 ‘가라지 비유를 설명하시다’(13,36-43)와 연결된다.

## 겨자씨의 비유(마르 4,30-32; 루카 13,18-19)

- 31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렸다.<sup>15)</sup>
- 32 겨자씨는 어떤 씨앗보다도 작지만, 자라면 어떤 풀보다도 커져 나무가 되고 하늘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sup>16)</sup>

14) 앞, 105쪽, 각주 15.

15) 겨자는 한해살이풀로 성장이 빠르고 토양이 좋은 경우에는 3미터까지 자란다. 그런데 새들이 모여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깃들이지 않는다.

16) 시편 104,12 : 그 곁에 하늘의 새들이 살아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웁니다.

- 1) 겨자씨는 실제로 가장 작은 씨앗은 아니지만, ‘겨자씨처럼 작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작은 것 또는 가장 적은 양을 가리키는 데에 쓰였다.<sup>17)</sup>
- 2) 이 비유는 시작의 왜소함과 끝의 영화로움이 대비되는데, 비유의 가르침은 신앙의 안목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 활동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기득권자(개혁자)들보다 훨씬 초라하다. 그러나 그러한 보잘것없는 시작 단계를 꿰뚫어 끝의 영화로움을 알아보라는 것이다.<sup>18)</sup>
- 3) 이 마지막 말은 모든 생물과 모든 민족이 그 그늘에 살게 된다는 구약성경의 거대한 나무를 상기시키는 것이다.<sup>19)</sup>

### 누룩의 비유(루카 13,20-21)

**33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늘 나라는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서 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 1) 겨자씨의 비유에서와 달리, 여기서는 누룩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과 반죽의 모습이 변한다는 사실이 첨가된다. 그리고 ‘중간 시기’ 동안의 인내심에 관한 관심보다는, 적은 양의 누룩과 그것이 부풀린 큰 덩어리의 대조가 강조된다.<sup>20)</sup>
- 2) 겨자씨의 비유와 같이 누룩의 비유는 하느님 나라의 확장성을 가리킨다. 하느님 나라는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된다. 하느님 나라는 비록 작고 적은 것이지만, 밀가루 서 말을 부풀게 하는 누룩같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 비유를 들어 가르치시다(마르 4,33-34)

**34 예수님께서서는 군중에게 이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를 들지 않고는 그들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다.**

#### **35 예언자를 통하여**

**“나는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리라.**

**세상 창조 때부터 숨겨진 것을 드러내리라.”**

17) 앞, 106쪽, 각주 18.

18) 위, 각주 17.

19) 예제 17,23 : 이스라엘의 드높은 산 위에 그것을 심어 놓으면 햇가지가 나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향백나무가 되리라. 온갖 새들이 그 아래 깃들이고 온갖 날짐승이 그 가지 그늘에 깃들이리라.

다니 4,9 : 앞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다. 그 그늘 밑으로는 들짐승들이 찾아들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깃들이며 모든 생물이 그 나무에서 양식을 얻었다.

4,18 : 앞은 아름답고 열매는 풍성하여 모든 사람의 양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그늘 밑에는 들짐승들이 깃들이고, 그 가지에는 하늘의 새들이 둥지를 틀었습니다.

20) 앞, 각주 21.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된 것이다.**

- 1)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을 바깥사람들로 여기시기 때문이다. 반면 제자들은 집안 식구처럼 여기신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하느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모두 알아듣는 것은 아니다. 성장하는 과정에 있다.
- 2) 군중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를 선택해야 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든지 거부하든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중간한 태도는 용납되지 않는다.
- 3) 예수님께서 군중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귀를 열고 다가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 **가라지의 비유를 설명하시다**

**36 그 뒤에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으로 가셨다. 그러자 제자들이 그분께 다가와, “밭의 가라지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sup>21)</sup>**

들을 귀가 없고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군중을 떠나서, 제자들을 가르치신다.

**37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르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사람의 아들“은 복음의 첫 선포자이신 예수님 자신이다.

**38 밭은 세상이다. 그리고 좋은 씨는 하늘 나라의 자녀들이고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자녀들이며,<sup>22)</sup>**

- 1) 씨앗이 뿌려지는 세상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 온 세상으로 퍼짐을 상징한다.
- 2) ”하늘나라의 자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이고, ”악한 자의 자녀“는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39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악마다. 그리고 수확 때는 세상 종말이고 일꾼들은 천사들이다.**

**40 그러므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태우듯이,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sup>23)</sup>**

---

21) 마르 4.10 : 예수님께서 혼자 계실 때, 그분 둘레에 있던 이들이 열두 제자와 함께 와서 비유들의 뜻을 물었다.

22) 1요한 3.10 : 하느님의 자녀와 악마의 자녀는 이렇게 뚜렷이 드러납니다. 의로운 일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모두 하느님께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도 그렇습니다.

**41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터인데, 그들은 그의 나라에서 남을 죄짓게 하는 모든 자들과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을 거두어,<sup>24)</sup>**

**42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sup>25)</sup>**

- 1) "원수"는 하느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자들로서 세상에 악을 퍼뜨리는 자들이요, 추수 때는 세상의 끝 곧 종말이다.
- 2) "남을 죄짓게 하는 자들"은 사람으로 하여금 걸려 넘어질 수 있는 함정이나 미끼 또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며,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은 법을 무시하는 자들로서 하느님의 계명과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가리킨다.
- 3) 천사들은 세상 끝날에 사람의 아들과 함께 악인을 심판하여 악인을 멸망의 장소 곧 불구덩이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 4) "이를 간다"는 것은 분노로 씹씩대는 모습을 말한다.

**43 그때에 의인들은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sup>26)</sup>**

- 1) 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로서 아버지의 나라 곧 하느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해처럼 곧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 2) 귀를 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를 깨달아야 한다.

## **보물의 비유와 진주 상인의 비유**

이 두 비유는 하늘나라의 기쁨을 강조한다. "보물"과 "진주"는 사람들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면서 감추어져 있다. 엄청난 가치를 지닌 그것들을 발견한 사람은 기뻐하면서 거기에 가진 것을 모두 건다.<sup>27)</sup>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44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sup>28)</sup>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

23) 요한 15,6 :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잘린 가지처럼 밖에 던져져 말라 버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가지들을 모아 불에 던져 태워 버린다.

24) 마르 13,17 : 그때에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선택한 이들을 땅끝에서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이다."

25) 루카 13,28 :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사악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26) 묵시 2,7 : 귀 있는 사람은 성령께서 여러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승리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느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 주겠다."

27) 앞, 107쪽, 각주 31.

28) 팔레스티나 지역은 약탈이 빈번하고, 오늘날의 은행과 같이 재물을 맡길만한 공식 기관이 없었기때문에 그곳 주민들은 자기의 소유를 땅에 감추어 두는 예가 흔했다.

- 1) 보물의 가치가 그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얻을 만한 것임을 가르친다.
- 2) 보물은 귀하고 값진 모든 물건을 총칭(總稱)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곧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을 상징한다.
- 3) 사람에게 있어서 추구되어야 하는 가치는 비록 사람에 따라 다르고 다양한 것이지만, 신앙인에게 최고의 가치는 바로 말씀이다. 말씀을 통해 드러나는 하늘 나라의 신비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45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46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 1) 진주를 찾는 상인은 전문적인 안목(眼目)을 갖고 진주가 나올만한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이다. 이는 인생의 허망한 것을 좇지 않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의 진리를 찾는 사람이다.
- 2) ‘진주 하나’는 여럿 중의 하나가 아니라 오직 하나로서 진주의 희귀성을 강조한다. 말씀은 그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

## 그물의 비유

이 비유는 가라지의 비유처럼 종말 때까지 지속되는 악인들과 선인들의 공존을 드러낸다. 그러면서도 가라지의 비유와는 달리 인내가 아니라, “나쁜 것들”에 가해지는 위협이 강조된다.<sup>29)</sup>

**47 “또 하늘 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온갖 종류의 고기“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서, 온 세상 모든 사람을 상징한다. 그리고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있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에는 선인과 악인이 공존함을 뜻하기도 한다.

**48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 올려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 버렸다.**

**49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50 불구덩이에 던져 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 1) '물가'란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종말의 심판과 하늘나라의 완성 사이의 중간 시기를 의미한다.

---

29) 앞, 각주 33.

- 2) 그물에 걸린 고기가 버려지거나 아니면 그릇에 담기든가 하듯이 마지막 날에 의인과 악인이 구별될 것이다. 따라서 물가는 심판의 장소라 할 수 있다.
- 3) 예수님의 가르침을 허투루 듣지 말라고 촉구하며, 슬픔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 하라고 권유한다.<sup>30)</sup>

## 비유를 끝맺는 말씀

### 51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 1) “이것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난 ‘하늘나라의 신비’를 가리키는 것으로, 제자들이 이에 대해 영적으로 이해하였는지 물으시는 것이다.
- 2) 제자들이 “예”라는 대답함으로써 자신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였다는 자부심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성령의 도우심이 있었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얼마 안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에 대한 몰이해로 인한 핀잔을 듣기 때문이다.<sup>31)</sup>

### 52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 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것도 꺼내고 옛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 53 예수님께서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 1)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 학자”는 일차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달은’ 모든 청중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마태오 복음서는 우선 성경에 능통한 청중을 대상으로 하였으리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마태오 자신이 율법 학자였다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기에 마태오 자신을 가리킬 수도 있다.<sup>32)</sup>
- 2) “곳간”은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거듭난 유대교 율법 학자들의 전통적인 가르침, 또는 그리스도교 율법 학자가 이제는 ‘성취된’ 것으로 제시하는 구약성경을 가리킬 수도 있다. 또는 복음서 저자가 옛것과 새것들의 원천으로 제시하는, 이미 오래된 예수님의 가르침일 수도 있다.<sup>33)</sup>
- 3) 당시의 율법 학자들은 율법을 지나치게 자구(字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간과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인 새것과 구약의 옛것을 동시에 조화롭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

30) 위, 각주 34 참조.

31) 마태 15,15-16 :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 비유를 저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직도 깨달지 못하느냐?”

32) 앞, 108쪽, 각주 36 참조.

33) 위, 각주 37.

나자렛에서 무시를 당하시다(마르 6,1-6; 루카 4,16-30)

- 54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시어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 사람이 어디서 저런 지혜와 기적의 힘을 얻었을까?  
55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지 않나?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아닌가?  
56 그의 누이들도 모두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가? 그런데 저 사람이 어디서 저 모든 것을 얻었지?”  
57 그러면서 그들은 그분을 못마땅하게 여겼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과 집안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58 그리고 그들이 믿지 않으므로 그곳에서는 기적을 많이 일으키지 않으셨다.

- 1) 예수님의 고향은 나자렛이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서는 적극적으로 말씀을 선포 하셨으며, 예수님의 고향에서부터 기득권자들과의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 2)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본다. 신앙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
- 3)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드러나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인간적인 시선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배척하기에 이른다.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는 그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으셨다.